

“정신 정화 없이는 민족의 미래도 없어요”

정화재주인 헤민 스님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연못의 백련은 다 헤민 스님의 자식들이다. 18년 전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선생이 백련 세 뿌리를 준 것이 전국의 연못을 하얗게 잠입한 백련의 시원이 됐다. 헤민 스님은 세 뿌리의 백련을 다음해에 2400㎡에 가득 심을 만치 늘렸다.

그리고 누가 달라면 아무 대가없이 나눠 주었다. 백련을 차와 식품으로 응용하는 연구도 했다. 지금은 여러 스님들과 학자들이 백련을 가지고 먹거리도 만들고 마실거리도 만든다. 백련보급의 원조인 헤민 스님은 지금도 다반 농사를 지을 뿐이다.

35년 동안 가꾸었던 인취사를 나와 예산의 한 과수원 옆에 정화재(靑華齋)라는 이름의 연꽃도량을 가꾼 지 3년째다. 1000여개의 고무 통에서 백련들이 숨을 쉬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밤금 눈을 뜬 수련들이 수줍게 웃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절묘하게 연결해 지은 정화재는 농막(農幕) 같기도 하지만 정갈하고 운치 있는 도량이다.

“이거 읽어 봐.”

인사를 드리자마자 종이를 내미신다. A4 용지 두 장. ‘삼죽까마귀’란 제목의 시다. 찬찬히 읽

“<화엄경>의 가르침이 결국은 대립과 갈등을 다 극복하고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신정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대립과 상설과 왜곡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원용과 조화의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강조하는 역사와 문화의 상설과 왜곡은 우리의 상고사를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작년 가을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며 커다란 비감(悲感)에 싸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뿌리를 제대로 추스르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문화는 전래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중요한 맥박인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 가는 햇빛과 견인차 역할을 못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의 탄신일과 기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는 헤민 스님은 “추사제는 없다”고 말한다.

“중국의 왕희지가 역사에 들도 없는 대목(大木)이라면, 추사는 연장 없는 목수입니다. 추사체라는 것은 없어요. 갈 지(乞)자 하나도 같은 서체가 없는 것이 추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유배 시절에는 유마처럼 사셨고



삼죽까마귀

세월을 넘어
오녀산성(五女山城)을 둘러 보았다.
목이 말라 옛 우물을 찾았다.
이끼에 둘러싸인 우물은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고구려 첫 번째 도읍인
이곳 환인(桓仁)
그 장엄했던 대륙의
발자국을 더듬으며 구름 사이로
지워져 버린
역사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목마름도 잊어버린채
장엄한 그 환연 앞에서
넋을 잃었다.

평풍이 몰아치는
오녀산성을 땀도는
삼죽까마귀
태양을 상징하는
그리고
역사와 꿈을 먹고 산다는
우리 민족의 혼
삼죽까마귀

아무도 찾은 이 없는
허허한 산성
부러진 화살 꽃혀 있는
남은 등지를
아직도 땀똥고 있다.

지평선 넘어
어딘가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
요동발을 호령하는
고구려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오면
삼죽까마귀는
잃어 버린 언어를
다시 찾겠지
아!
목이 마른다.

해란강 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른다.
압록강 두만강 물을
다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고
더욱 목이 메인다.



백련 보급의 원조·메발톱꽃 연구도 매진

화엄의 가르침은 ‘둘 아닌 도리’ 아는 것

고 있는 동안 스님은 차를 따라 주신다. 사발 크기만한 찻잔에 연꽃향이 가득하다. 백련차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작년 가을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들을 좀 보고 왔지.”

“응혼하던 기상이 스러져 버린 곳을 둘러보신 애절함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민족이 할 일이 많고 불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을 봐. 이래가지고 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정치는 썩박질로 바쁘고 종교인은 ‘면죄부’ 장사하기에 바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뒤떨리고 사라지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탄의 목소리는 저랑저랑했다. 물론 스님의 개탄은 비판을 위한 비판도 무자정의 비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 불자들이 지녀야 할 바른 정신을 촉구하는 사자후다.

“정신정화를 해야 합니다. 물질정화는 다 됐잖아요.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것에 앞서 정신이 정화 되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정신정화가 없으면 역사도 문화도 다 상실되고 왜곡되어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헤민 스님이 제시하는 정신정화의 요지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것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알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은 “깨달음의 삶에 있어서 지식은 윤회율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청 유배시절은 화엄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미 선생님의 글씨는 세상의 격식과 인식을 벗어나 대자유의 경지를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추사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헤민 스님은 ‘매달민족’이란 ‘이 땅에서 모성을 근본으로 하는 영원히 밝은 민족’이라고 풀이하며 화엄의 가르침대로 본래 둘 아닌 하나의 장엄한 민족으로서의 기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사의 글씨처럼 말이다.

헤민 스님은 요즘 백련과 더불어 야생화 메발톱꽃을 연구하고 기르는데 지극정성을 쏟고 있다. 수 십 가지 색의 메발톱꽃이 비닐하우스에 가지런하게 정돈 되어 있다.

다양한 색상에 추위에 강하고 씨앗을 받기 쉽고 발아율이 높은 점이 메발톱꽃의 특징이다. 스님은 그 꽃들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초파일을 앞두고 연등을 접수 받을 때 메발톱꽃 화분을 전시하면서 하나씩 나눠주자는 것이다. 받는 불교에서 나누는 불교로의 전환이다.

우리 시대의 ‘숨은 명필’ 가운데 한 분인 헤민 스님은 백련을 통해 범향을 퍼뜨린 것처럼 메발톱꽃을 통해 불교의 정신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불자들이 먼저 정신정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치게 강조하는 헤민 스님. 오늘날 스님은 세상을 향해 묻는다.

“인간세상 보다 더 밝고 환한 ‘화엄’이 어디 있었는가?”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헤민 스님은
19세 때 당대의 선지식인 효봉 운허 금오 동산 설봉 스님에게 “출가를 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다. 단 한 분, 운허 스님의 답장을 받았다. “버린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자”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범어사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다가 설봉 스님을 만나게 되어 상좌가 됐다. 그리고 5년간 직접 경을 배웠다. 8세 때부터 글씨(서예)를 썼는데 출가 후 온양에서 고석봉 선생에게 서법을 배우게 되었고 인취사에 35년간 머물렀다. 백련 보급과 응용 연구를 했고 15년 전부터 매년 ‘백련시사’를 연다. 생태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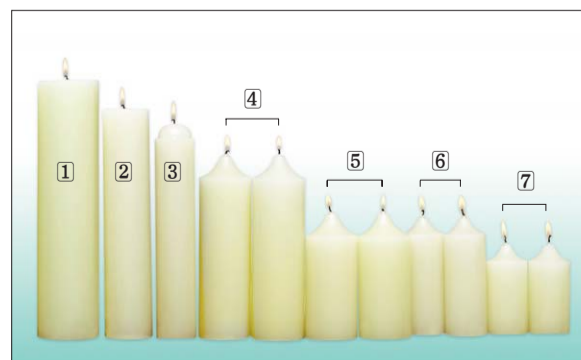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3호 4.7φCm × 13Cm ④ 4호 4.7φCm × 10Cm
 - ⑤ 1호 5.9φCm × 20Cm ⑥ 2호 5.9φCm × 14Cm

장엄용 양초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